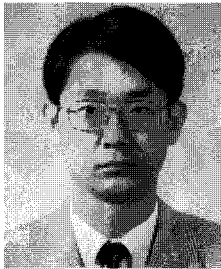


당뇨병성 피부 질환의 치료와 예방



여운철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전문의

피부병변은 당뇨병의 경과와
관계 없이 나타나기도
하나 당뇨의 조절에 실패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피부 증상

당뇨병의 피부 증상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일 수가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 피부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심한 피부 증상을 보이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환자에서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피부 증상은 소양감과 피부 감염 등이다.

이러한 피부병의 원인으로는 당뇨병에서 발생하는 작은 혈관의 이상이 피부에서 생기는 점, 말초신경의 이상이 피부에 나타나는 점, 기타 피부의 건조 등이 관여하리라

생각된다. 당뇨병성 피부 질환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①소양감(가려움증)

소양감은 많은 피부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피부 증상의 하나인데, 전신 질환인 당뇨병도 소양감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된다.

당뇨병환자에서 소양감이 흔히 나타나는 데 대개 전신적으로 나타나며, 항문이나 성기부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소양감의 원인으로는 건조한 피부



【그림1】 당뇨병성 수포

②피부 감염

당뇨병환자에서 피부 감염은 소양감과 함께 흔히 나타나는 피부 증상으로 포도상구균에 의한 세균 감염과 피부사상균 및 칸디다에 의한 곰팡이 감염이 흔하다. 당뇨병환자는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에 습진을 동반한 칸디다나 피부사상균의 감염이 흔하다.

당뇨병환자에서 흔히 곰팡이 감염에 의한 무좀을 보는데 이는 당뇨병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보다 훨씬 어렵고 재발이 잘 된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보고에 의하면 곰팡이 감염이 당뇨병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피부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③유지방성 피사 생성

당뇨병환자의 1% 미만에서 발견되는 드문

가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당뇨병에서는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땀의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부의 건조증을 유발하고 이에 의해 소양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습제 등을 이용해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방지하여야 한다.



【그림2】 당뇨병성 피사

피부 질환으로 당뇨병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지방성 괴사 생성의 약 50%가 당뇨병이 있으므로 당뇨병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생각된다.

여자에서 남자 보다 3배 정도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 양쪽 정강이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소이며 처음에는 경계가 명확한 적색의 뿔루지처럼 시작하여 나중에는 딱딱한 밀납 모양의 황갈색의 판으로 변한다. 질환 부위가 간혹 궤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당뇨병이 조절되어도 본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림3】 유지방성 괴사 생성

④당뇨병성 피부병

당뇨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부 증상으로 서양에서는 약 50%, 우리나라에서는 약 20%의 당뇨병환자에서 관찰된다. 당뇨병이 만성화될수록 발병이 높아지며 피부병변은 특별한 자각 증상은 없으며 정강이와 허벅지의 앞쪽에 적갈색의 뿔루지가 여러개 나타나며 때로는 팔에도 나타난다. 뿔루지는 점차 비늘 같이 벗겨지면서 색소 침착을 보이는 상처를 남기고 치유된다. 이러한 발진은 1~2년 이내에 저절로 완전 소실하게 된다.

⑤당뇨병성 수포증

만성적인 당뇨병환자에서 발견되며 아무런 외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여 물집이 생긴다. 주로 사지의 말단부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크기는 3cm 이내이다. 4주내지 5주 이내에 자연 치유되며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⑥당뇨병성 괴저

당뇨로 인한 동맥경화증과 말초신경증이 있는 당뇨병환자에서는 혈관 이상으로 인해 피부에 피의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부에 궤양이 발생하여 치유가 잘 안되고 이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일으켜 괴저(살이 썩음)를 초래하는 예가 간혹 관찰된다.

이러한 궤양과 괴저는 발에 흔히 생기므로 당뇨병환자에서는 발에 대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피부의 피의 흐름이 나빠지면 피부가 차가워지고, 털이 없어지며, 손발톱이 변형되거나 창백해지고, 통증이 오거나 운동시 다리가 저절로 접히는 등의 징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혈관 이상을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기타

당뇨병환자에서 흔한 증상으로 얼굴과 손발이 장미색조를 띠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당뇨병에 의한 혈관 이상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목 뒤의 피부가 붓고 딱딱해지는 등 여러 피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 치료에 의한 피부 합병증

인슐린주사로 인해 지방이 분해되거나 뭉치는 수가 있는데 이런 반응은 최근의 고도로 정제된 인슐린주사로 인해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런 반응은 같은 부위에 계속 인슐린을 주사하면 발생한다.

지방이 뭉쳐서 딱딱한 부위는 주사시 통증이 덜해서 같은 자리에 계속 주사하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인슐린의 흡수가 떨어지므로 당뇨의 조절도 곤란하게 된다. 인슐린주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발생하는데 두드러기처럼 생기며 심하면 전신적인 두드러기와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특히 인슐린주사를 한동안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 잘 발생하



【그림4】 캔디다 조갑 감염

고, 이런 전신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인슐린주사 부위에 피부 발진도 심하고, 점점 더 커지는 모양을 보이는 등 징후를 나타내므로 이때는 전문의와 빨리 상담하여야 한다.

■치료

이러한 당뇨병성 피부병변은 당뇨병의 경과와 관계 없이 나타나기도 하나 당뇨의 조절에 실패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성 피부병은 우선 당뇨의 조절을 철저히 하고 각 피부병에 적절한 대응 치료를 하여야 한다. **DAK**